

高麗浮屠의 研究

鄭 永 鎬

一 序 言

高麗時代에 이르러서도 역시 佛敎가 국가적인 종교, 王室佛敎로서 번영하였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바다. 즉 前代로부터 이어졌던 호국불교적 성격은 國初부터 많은 국가적 寺院의 건립을 보게되었으니 開京의 十大寺刹의 건립이나 都城안의 七〇區의 佛寺가 있었다는 기록①은 고려가 곧 불교국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며 또한 당시의 佛寺建立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적인 모든 造營이 거의 고려 一代를 통하여 국가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불교적 조영의 성황속에서 불교를 이끄는 僧侶들의 浮屠의 건립도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우기 高僧大德을 王師 혹은 國師로 모시어 그들의 지위가 가장 높았으며 國政을 자문하기에까지 이르렀으므로 그들의 墓塔인 浮屠를 건조함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있었을 것임은 짐작되는 일이다.

고려시대의 石造浮屠를 개관함에 있어서 필자는 三期로 나누어 고찰하려고 하는바 그것은 고려초기에 있어서 前代의 여운에서 이루어진 초기적 건조상황을 살펴보고 다음 고려중엽에 이르면서 나타난 특수한 형식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후기에 이르러서의 건조상황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모든 문화의 유산은 시대적 소산물임으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각기 造形을 달리하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바 이러한 생각에서 三期型 나누어

- 첫째, 初期의 浮屠
- 둘째, 中期浮屠의 特殊形式
- 셋째, 後期の 浮屠
- 네째, 石鐘型 浮屠

라題하여 本論放를 작성하려고 한다.

二 初期의 浮屠

대체로 고려초기라 할 때 초기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어느 시기, 어느 王代까지를 초기로 잡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일반사에서 의사대개념을 배경으로하여 美術史의 인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일반사에서 초기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太祖 王建은 고려를 건국하고(九一八 A·D) 新羅와 後百濟를 공략 병합하여 四〇여년간 분열되었던 민족을 재통일 하였다(九三六 A·D) 이후 왕권의 확립을 위하여 모든 통치체제를 재편성하게 되는 것이나 이와같은 제도의 개혁은 단시일에 성취된 것은 아니다. 제4대 光宗을 거쳐 왕권의 안정을 기하면서 제6대 成宗대에 이르러 모든 文物制度가 정비되고 대체로 성취된 것이다.

즉 光宗은 왕권의 확립을 위하여 당권에 복종하지 않는 많은 귀족을 숙청하고 百官의 公服을 정하였으며 특히 奴婢按檢法을 실시하므로써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노비를 해방시킴으로써 귀족들의 세력을 꺾었다. 더우기 成宗은 지방행정기구의 정비와 地方官의 파견으로 지방까지 왕권을 미치게 하고 鄉職을 개혁하여 事審官의 수를 제한함에 지방호족의 지위가 격하되었으며 兵器를 몰수하여 농기구를 만들고 호족의 私兵 양성을 금지하였으니 이로써 왕권이 안정되고 고려왕

조의 국가 체제가 정비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成宗代(九八二~九九七 A·D)에 걸쳐 中央과 地方의 모든 정치제도가 완비되고 軍制가 개편되었으며 國子監을 설치하는 등 學制를 개편하였다. 그리고 乾元重寶를 비롯한 鐵錢을 주조함으로써 화폐경제까지 창안하였으며 常平倉과 義倉을 설치하는 등 사회정책에까지도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권농정책으로 직전의 면세조치를 취하고 儒敎를 존중하며 지나친 불교적의식을 폐지하는 등 문화나 종교면에까지도 정비와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일들을 살펴보면 고려의 안정은 역시 光宗을 거쳐 成宗代에 이르러 구축되었으니 고려의 기틀이 마련된 成宗代까지를 고려의 초기로 보아 마땅하지 않을까 한다.

王建 太祖로부터 成宗代까지를 高麗初期로 잡았을 때 곧 一〇世紀末까지가 된다. 一〇世紀 초반에 이르러 新羅가 쇠망하고 王建에 의하여 高麗王朝가 창립되어 民族이 再統一 되었으며 一〇世紀末에 이르러 王權이 安定되고 모든 文物制度가 완비되는 등 高麗의 기틀이 잡혔으니 이러한 初期의인 一〇世紀가 지나 一世紀에 들어서면서 高麗의인 社會, 文化期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本章에서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歷史속에서 신라말기에 성행하였던 여러 祖師의 浮屠建立을 高麗初期에는 어떻게 계승하여 다음 세대의인 一世紀에 이어주었던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즉 신라말의 양식을 어떠한 형태로 계승하고 소화하여 고려초기의 浮屠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論題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우선 고려초기에 건조된 浮屠들을 검토하여 자기 지니고있는 특징을 찾아낼 것이며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면 초기적인 浮屠의 특수성이 명백해 지리라 믿는다.

고려시대의 건조물로 추정되는 浮屠는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國寶 혹은 寶物로 지정된 것만도 수십기를 헤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건조연대가 뚜렷하여 이른바 絶對年代를 가지고 있는 초기의 浮屠는

우선 다음과 같은 八基를 들 수 있다. 즉 興法寺眞空大師塔, 普賢寺朗圓大師眞塔, 大安寺廣慈大師塔,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 普願塔法印國師寶乘塔 등 六基를 차례로 들 수 있고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과 興寧寺澄曉大師寶印塔을 들어 도합 八基라 하겠는데 大鏡大師玄機塔과 澄曉大師寶印塔은 일찌기 주목된 바 없어 그 主人公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르러 연구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주인공을 찾게 되었으므로 비록 건조연대가 다른 浮屠들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순서를 뒤로 미루었다.

이들 八基의 浮屠는 그 주인공과 소속 사원이 모두 확실하며 특히 그들의 塔碑가 건립되어 있으므로 각 주인공의 행적과 건조연대등을 확실히 알 수 있어 같은 세대에 건립된 연대 미상의 浮屠들을 고찰하고 연대를 추정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미술사연구에서 가장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은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유적유물이 라 하겠는데 本章에서 살펴보려는 八基의 浮屠는 이러한 점에서 귀중한 자료들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各項에서는 하나하나 浮屠別로 고찰하여 各部의 造成手法등을 살펴보고 정리하여 종합적인 검토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것인바 특히 塔碑文의 내용도 재검토하여 정확한 연대추정을 아울러 진행하려고 한다.

(一) 興法寺眞空大師塔(보물 제三五五호, 서울 景福宮 소재, 원위 치는 강원도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興法寺址, 現全高二, 九cm)

이 浮屠는 花崗岩造成으로 先代이래의 八角圓堂의 기본형태를 충실히 본받고있다. 數枚石으로 結構한 넓직한 方形地臺石위에 基壇部의 下臺石을 받고 있는데 이 下臺는 八角의 蓮華臺石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서리마다 蓮瓣 內面쪽에 낮은 귀퉁이 장식되었다. 伏蓮 밑은 높직한 面石으로 이루어졌고 그 上端은 甲石形이 모각되었으며 각 면에는 불이 안쪽으로 날카롭게 뻗은 眼象 一區式을 음각하였는데 이 眼象內에는 花

形紋이 장식되었다.

中臺石은 八角의 平面을 취하고 있으나 거의 모서리를 죽여서 마치 鼓腹形을 이룬 것처럼 보이며 이 全面에는 雄渾한 수법으로 雲龍을 조각하였다. 즉 太彫로 웅장한 卷雲紋을 가득히 조각한 가운데에 龍頭와 胴體가 곱들거리듯 응건하게 조각하였으며 특히 눈 코 입 비늘 등은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이렇듯 표면장식에 雲龍을 조각하였음은 雲上界에 승천하는 雲龍의 장엄한 자태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上臺는 仰蓮石으로 이루어졌는데 下面에는 八角形의 받침이 彫出되어 中臺石의 上端部에 놓였다. 上面에는 二段의 角形과 임을 彫出하여 塔身石을 받고 있다.

塔身도 一石으로 조성되었는데 八角의 平面이며 隅角의 柱形은 上下와 中央에서 안으로 花形이 斗出되는 특이한 형식이다.

八角屋蓋石 역시 一石으로 조성되었는데 약간 높은 편이며 下面에는 三段의 屋蓋받침을 刻出하고 이 받침부를 중심으로 二重의 椽木을 細刻하여 木造建築의 意匠을 엿볼 수 있다. 落水面은 八條의 굵은 隅棟이 흐르다가 轉角에 이르러 높직한 고사리紋의 귀꽃이 솟았는데 八隅의 轉角에 返轉이 심하여 높이 솟은 귀꽃과 잘 어울리고 있다. 각 隅棟사이에 는 기와를 입힌 모양의 기와골이 寫實的으로 표현되었으며 八面의 轉角部에 이르러서는 암막새와 수막새까지 모자해놓아 木造建築物의 일면을 또 한번 볼 수 있다.

육개석 정상에는 一石으로 造成된 八角寶蓋石이 놓여있을 뿐 다른 相輪部材는 없다. 이 寶蓋石은 落水面에 기와 골은 표현되지 않았으나 八條의 굵은 隅棟과 八隅轉角의 返轉은 뚜렷하다.

이 眞空大師塔의 조성연대에 대해서는 塔碑가 남아있으므로 이 碑文에 의거함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碑身의 파손으로 이를 참고할 수가 없다. 그러나 高麗史 世家의 太祖二三年條에 「秋七月 王師忠湛死 樹塔于 原州靈鳳山興法寺」라 보이는 기록이 있어 곧 이 浮屠의 건조연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高麗太祖 二三年은 九四〇년에 해당하는데 이 연대를 眞空大師塔 건립연대의 上限으로 보아 그 下限은 그리 뒤지지 않음을 浮屠 자체의 양식수법과 당시의 형제 등에서 추측할 수 있으므로 太祖 二三年(九四〇) A·D 경을 곧 眞空大師塔의 건조연대로 추정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이상 眞空大師塔을 살펴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基壇部부터 屋蓋石까지 전체의 平面이 八角인데 地臺石만은 方形이다.

둘째, 基壇部는 上·下蓮華臺石이며 下臺石 측면에 眼象이 조각되었다. 그러나 中臺石은 全面에 雲龍紋이 滿彫되어 고려시대 浮屠에서는 처음보는 특징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先代作에서 본받은 것 같다.

셋째, 塔身에는 門戶形을 모자하고 각 면에는 兩隅柱대신 장식적이고도 異形的인 眼象紋을 조각하였다.

넷째, 屋蓋石은 下面이나 落水面이 모두 木造建築物의 屋蓋部를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서 椽木이 彫出되고 기와골이 나타나고 있으며 암막새 수막새 등의 막새기와까지 모자하였다.

다섯째, 相輪部는 部材가 寶蓋뿐이나 추녀의 곡선이나 轉角의 返轉, 落水面의 경사등이 屋蓋石의 양식 그대로를 옮긴 것 같이 보인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해보면 中臺石에서의 雲龍紋이 先代作을 모방 삼은 것처럼 屋蓋石등 各部가 先代浮屠의 各部樣式을 계승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二) 普賢寺郎圓大師眞塔(보물 제一九一호, 강원도 溟州郡 城山 面 普光里 普賢寺 境內 소재, 現全高 二m)

원위치인 뒷산 중턱에서 현재의 부도밭으로 옮겨 세워 놓았는데 地臺石부터 相輪部, 屋蓋石에 이르기까지 八角平面을 기본으로 한 八角圓堂型의 浮屠이다. 花崗岩으로 造成하였는데 바 무너져 부서진 것을 다시 세웠는데 中臺石과 相輪部의 部材를 약간 잃고 있다.

二枚의 板石으로 結構된 높직한 八角地臺石위에 建립하였는데 下臺石 측면에는 얇게 長方形額을 두르고 그 안에 큼직한 眼象을 一區式 조각 하여 마치 二重眼象처럼 보인다. 측면 上端은 一條帶를 돌려 甲石形을 이루었고 上面에는 花紋이 조각되었으며 中央部의 伏蓮이 조각된 正상에 얇은 帶를 돌리고 孤形과 角形의 二段괴임을 明顯하여 윗부분을 받고 있다.

上臺石은 八角蓮華臺石으로 下面에 一段의 角形반침이 刻出되었고 측면에는 重瓣의 仰蓮을 화려하게 배치하였다. 그 上端은 一條帶를 돌려 甲石形을 이루었다. 塔身石은 各面에 兩隅柱를 彫出하고 前面 中央下部에 戶形과 門輪形을 모각하였을 뿐 四天王像등의 별다른 조각은 없다. 屋蓋石은 폭이 좁고 두꺼운 圓으로 下面에는 三段의 屋蓋반침이 있을 뿐 별다른 장식이 없다. 추녀 밑은 各隅에 이르러 上向하면서 返轉이 뚜렷하여 고려시대 석탑의 옥개석과 같은 수법을 보이고 있다. 落水面은 경사가 매우 급한 편이고 嵩은 隅棟形이 各面의 合角머리에 표시되었으며 기와골은 없다. 八隅의 轉角에는 귀꽃이 조각되어 있었으나 모두 파손되고 현재는 各轉角部에 破痕만이 크게 남아 있다.

相輪部는 옥개석 正상에 남작한 扁球形의 覆鉢을 얹고 그위에 옥개석을 축소해 놓은 것과도 같은 형식의 寶蓋石을 놓았다. 이 寶蓋에는 八隅의 轉角部에 귀꽃이 간혹 남아 있어 옥개석에서의 귀꽃양식을 추정할 수 있다. 頂上에는 寶珠가 없었으나 현재는 倒置되어 있다. 이 寶珠는 밑에 仰蓮이 둘러져 장식되었고 그 위에 四方에서 四條의 石材가 圓弧形의 곡선을 그리면서 正상부에서 집결되어 마치 金剛杵와도 같은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現地에는 塔碑가 있으며 그 末尾의 建립緣記를 보면 高麗太祖 二三年(九四〇 A·D)에 建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大師의 浮屠建立의 年代를 九四〇년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 같다.

이와 이갈 郎圓大師悟眞塔의 각부를 살펴 보았는바 그 內容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地臺石부터 基壇部, 相輪寶蓋石에 이르기까지 全部材가 八角平面으로 造成되어 있다. 둘째, 기반부는 上·下蓮華臺石이며 下臺石에는 측면부에 眼象이 장식되어 있다.

셋째, 塔身石은 各面에 兩隅柱뿐이며 門戶形을 모각한 一面이 있다. 넷째, 옥개석은 木造建築의 모방이 없고 石塔形의 落水面과 추녀, 轉角部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각모서리 轉角위의 隅棟에 귀꽃이 조각되었음은 浮屠屋蓋石의 특징인 것이다.

다섯째, 相輪의 寶蓋石에 귀꽃이 남아 있어서 모두 파손되어 없어진 屋蓋石轉角의 귀꽃을 짐작케 한다.

이 浮屠는 전체적으로 보아 표면장식이 화려하지 않고 또 규모도 크지 않은 소박한 浮屠이다. 그러나 하대석의 眼象이나 屋蓋石등에서 先代의 樣式을 모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三) 大安寺廣慈大師塔(보물 제二七四호, 전라남도 谷城郡 竹谷面 元達里 大安寺 境內소재, 現全高二·八m)

八角圓堂型의 기본형을 답습하고 花崗岩으로 조성한 浮屠로서 地臺石부터 相輪, 寶蓋石까지 八角의 平面을 이루고 있다.

地臺石과 기반부의 下臺, 中臺까지 同一石으로 건조되었는데 八角의 地臺上面에 서로 엇갈리게 八角의 괴임臺를 마련하여 下臺를 받고 있다. 이 괴임臺는 三段으로 이루어졌는데 下段은 높직한 角形이고 中段은 약 간 높은 孤形이며 上段은 아주 낮은 角形이다.

下臺石은 측면부와 상면부로 구성되었는데 측면 下端에는 높직하고 낮은 二段의 角形괴임이 모각되었으며 각 측면에는 線刻의 唐草紋이 조각되었다. 이 측면의 上端部에는 또 하나의 측면부가 마련되었으며 약 간 좁아진 각 측면에는 下端에 낮은 괴임이 刻出되고 細長한 眼象이 二區式 조각되었으며 上端은 甲石形을 이루었다.

中臺는 낮은 편이나 자연스럽게 보이며 각 측면에는 長方形의 周緣을

따라 長方形의 額形을 모각하였는바 좌·우는 직선이 아니고 孤形인데
이안에 각기 一區式的 眼象을 조각하였으므로 마치 二重의 眼象을 장식
한 것처럼 보인다.

一石으로 造成한 上臺石은 下面에 三段의 받침을 모각하고 單葉 一六
瓣의 仰蓮을 상·하로 조각하였으며 上端의 蓮瓣內에는 각기 花紋을
장식하였다. 上端은 一條帶를 둘러 甲石形을 이루었고 그 上面에는 二段
의 괴임을 각출하여 높직한 괴임臺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欄干을 모방
한 것으로도 보인다.

塔身은 각 면에 周緣을 따라 長方額을 둘러 마치 隅柱처럼 보이는데
전·후면에 門戶形을 배치하고 그 좌·우에 四天王立像을 조각하였으며
나머지 兩面에는 卓 위에 놓인 香爐形을 장식하여 塔身을 이루고 있다.

옥개석은 목조건축의 양식을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下面에 낮게 모각된 받침대 밖으로 角形 二重의 椽木이 모각되어 있다.
그리고 落水面에는 八角마다의 楸은 隅棟形 사이에 기와골을 표시하고
추녀에 이르러는 암막새와 수막새의 막새기와까지 모각하고 있다. 옥개
석은 높은 편이나, 추녀부에 이르면서 얇아져서 重厚한 감을 덜어주고
있으며 轉角部의 返轉도 적당하다.

相輪部는 거의 완전한 형태를 남기고 있어 露盤과 仰花、覆鉢、寶輪、
寶蓋、寶珠 등이 차례로 놓여있는데 각 部材는 표면에 彫飾이 있다. 즉
八角 仰花의 各面에는 蓮瓣의 花形이 있고 覆鉢과 寶輪에도 花紋이
장식되었으며 寶蓋에도 頂面에 연관이 조각되어 있다. 다만 八角寶蓋石
의 각 추녀끝의 返曲이 심하여 異色의 이라 하겠으나 옥개석의 완만한
返轉과 대조적이어서 오히려 경쾌하게 보인다.

大師의 塔碑에 의하면 高麗 世 四代 光宗 元年(九五〇 A·D)에 塔碑
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大師의 浮屠塔建립의 연대를 九
五〇년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것 같다.

이상과같이 廣慈大師塔의 양식수법을 고찰하였는바 그 중요한 부분
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이 浮屠는 지대석부터 기단부, 탑신, 옥개석, 상륜부등 모든
부재가 八角의 平面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기단부에 있어서 상·하대석이 蓮華臺이나 상대의 仰蓮이 더욱
화사하여 瓣內에 花紋이 장식되었다. 中臺石이 유난히 低小하나 각 측
면에 眼象이 장식되어 상·하대와 어울리고 있다.

셋째, 탑신부에 있어서 높직한 괴임단이 받치고 있는 것은 특정적이
다. 탑신에서 門戶形이 모각된 전·후면을 제외한 나머지 六面に 향로
와 四天王立像을 조각하여 화려한 意匠을 표현하고 있다.

넷째, 옥개석은 下面이나 낙수면에 椽木과 기와골을 조각하고 특히
암막새, 수막새등 막새기와를 모각하여 목조건축의 수법을 모방하고 있
으니 화려한 기단부, 탑신부와 잘 어울리고 있다.

다섯째, 상륜부는 各部材가 완전히 남아있어 浮屠의 相輪 연구에 귀
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部材들도 연화문과 화문 등이 장식되어 下層
의 各部材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浮屠는 一見하여 上·下部 할것없이 전체의 구성이 균정하고 각
부의 조식도 장엄하여 가히 고려시대 초기의 浮屠중 秀作으로 손꼽을
만하다. 이것은 같은 寺域에 신라시대에 建造된 寂忍禪師塔이 있으므로
바로 이 浮屠를 모범으로 하여 기록된 廣慈大師塔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같은곳에 先代作이 있으면 그것이 곧 後代作의 모범이 되는 것이
常例인 것이다.

(四) 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보물 제 一七一號, 경상북도 聞慶郡 加
恩面 院北里 鳳巖寺境內 소재, 現全高 五 m)

地臺石부터 屋蓋石 相輪部材에 이르기까지 八角의 平面을 이루고 있
는 八角圓堂型 浮屠이다. 높직한 八角의 地臺石 上面에 낮은 角形과 높
은 圓弧, 또 하나의 낮은 角形의 三段괴임을 마련하여 기단부를 받고
있는데 기단은 상·중·하대로 이루어졌다.

下臺石은 二段으로 구성되었는데 높직한 下端의 각 면에는 一區式的

眼象이 조각되고 그 內面에는 花形이 장식되었으며 上端에는 副緣이 있는 甲石이 덮혀있다. 上面에는 雲紋이 가득히 조각된 높직한 一段의 庇임대가 있고 이 위에 上段을 받고 있는데 上段面石의 각 모서리에는 거의 圓刻에 가까운 圓柱形을 모각하고 그 표면에 또한 雲紋을 가득히 장식하였다. 各面에는 雲紋과 雙龍紋을 조각하였으며 上端에는 역시 甲石形을 덮고 있다.

中臺石은 八角의 각 면에 眼象 一區式을 조각하였는데 상·하와 좌·우에서 안으로 뻗은 花形이 강조된 특이한 형태이다. 眼象內에는 별다른 장식 없이 前面 한 면에만 卓上의 舍利盒과 寶蓋, 寶傘, 寶珠를 조각하였을 뿐으로 비교적 단조로운 中臺石이라 하겠다.

上石臺은 下面에 二段의 받침이 刻出되었으며 그 위로 複葉 一六瓣의 仰蓮이 조각되었는데 각 모서리와 邊面에 각기 一瓣씩 배치하였다. 이 上端에는 두툽한 甲石形을 덮고 그 上面에 높직한 二段의 塔心庇임대를 마련하였는바 三段의 낮은 庇임을 彫出하여 받고 있다. 下段이나 上段 庇임대의 각 모서리에는 欄干을 돌리고 또한 각 面石에는 短柱를 세웠는데 下段은 一柱씩이나 上段에는 二柱씩을 배치하였다.

塔身石은 각 面에 兩隅柱가 모각되었으며 前面에는 門戶形과 그 안에 자물쇠가 조각되었는데 다른 七面은 兩隅柱뿐으로 기단부 中대석과 같이 彫飾이 생략되었다.

屋蓋石은 下面에 三段의 받침이 刻出되고 이에 이어 角形의 副椽이 細刻되었다. 각 모서리 轉角部에 이르면서 上向과 返轉이 심한데 轉角에는 귀퉁이 조각되지 않았다. 落水面은 頂上에서는 약간 急하나 차차 平薄해졌으며 기와골의 표시는 없고 굽직한 隅棟만이 표현되었다. 옥개석 정상부에는 각 隅棟部에 一瓣式 八瓣의 伏蓮을 돌리고 相輪部를 받고 있다.

相輪部는 현재 部材가 별로 남아있지 않는데 八瓣의 立狀形仰蓮이 화사하게 조각된 仰花石이 놓여있고 그 위에 寶輪하나가 남아있다.

現地の 塔碑末尾의 건립연대를 보면 高麗 世四代 光宗 一六(九六五

A·D)에 塔碑를 완성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大師의 浮屠건립연대를 九六五年으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것 같다.

이상 靜眞大師圓悟塔의 각부 양식과 수법을 종합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이 浮屠는 지대석부터 기단부의 상·중·하대, 塔心, 옥개, 상륜부등의 全部材가 八角의 平面을 이루고 있다.

둘째, 기단부에 있어서 下臺石 下段 측면에는 眼象이 정연하나 上段은 연화문 대신 雲龍紋을 滿彫하였는데 龍頭의 彫飾이 寫實的임이 주목되며 雲上界를 표현한 意匠 또한 주의를 끈다고 하겠다. 그리고 中臺石의 舍利盒 조각도 흥미로운 바 있다.

셋째, 塔心부에 있어서는 一面에만 門戶形이 모각되고 각 면은 兩隅柱뿐으로 단조로운데 塔心을 받고있는 상·하 二段의 높직한 庇임대가 壯중하여 특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넷째, 옥개석은 하면에 角形의 椽木形이 모각되어 목조건축의 一面을 보이고 있으나 낙수면은 八面의 合角머리마다 굽직한 隅棟形만을 표시하여 하면의 椽木部와는 대조적이다.

다섯째, 相輪은 仰花가 立狀形仰蓮으로 돌려져서 빈약한 相輪部를 어느정도 살리고 있다.

이 浮屠는 같은 寺域에 건립되어 있는 先代作인 智證大師寂照塔을 모범으로 하여 各部에 塔心의 흔적이 보이는바 先代에 比하면 많은 생략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先代의 기본은 잃지 않고 있으니 역시 初期的인 특징이 아닌가 한다.

(五)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보물 제七호, 경기도 驪州郡 北內面上 橋里 高達寺址 소재, 現全高四·五m)

花崗岩으로 건조한 浮屠로서 八角圓堂型의 기본형식을 따르면서 一部에는 시대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樣式이 加味된 浮屠라 하겠다. 기단부 위에 塔心을 안치하고 옥개석을 덮은 一般型浮屠인데 기단부에서 특이

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四枚石으로 짜여진 넓직한 方形地臺石 위에 下臺가 구성되었는데 地臺와 下臺가 同一石으로 造成되었으므로 下臺 역시 方形을 이루고 있다. 下臺는 伏蓮臺로서 一面에 五瓣씩, 각 모서리에 一瓣씩 도합 二四瓣의 單葉蓮華紋이 둘러졌는데 수법이 매우 정돈되었다.

中臺石은 一石으로 조성되었는데 上臺部에 甲石形과도 같이 八角으로 둘러진 一條帶가 있어 八角平面的 意匠을 보이고 있으나 身部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上·下에 卷雲紋을 조각하였고 下臺部가 약간 넓은 편이다. 그 사이에는 正面에 一座의 거북을 조각하였는데 양쪽 앞발과 龜甲 부분이 잘 표현되어서 마치 石碑의 龜趺와도 같은 느낌을 준다. 이 龜趺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四마리의 龍이 雲中에 飛翔하고 있는데 이들 조각이 섬세하고 雄渾하다.

上臺石은 仰蓮石으로 下面에는 八角의 높고 낮은 二段의 角形받침이 刻出되었으며 측면으로는 八瓣의 큼직한 單葉蓮華紋이 각 모서리에 一瓣씩 조식되었고 上臺는 마치 八角의 甲石形과도 같이 一條帶가 둘러졌다. 上面에는 낮고 높직한 괴임대를 마련하여 탑신석을 받고 있다. 一石으로 조성된 八角塔身은 四面에 門戶形이 조각되고 다른 四面에는 四天王立像이 배치되었는데 그 조각은 릴리프가 강하면서도 정제되어 조각물로서도 주목된다.

一石造成의 옥개석도 八角인데 下面部에 椽木들의 모각은 없으나 孤形을 중심으로 상·하에 낮은 받침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넓고 높은 또 한段的 받침이 있어 椽木를 대신하고 있다. 추녀는 水平이나 轉角에 이르면서 上向하였고 특히 八隅의 轉角에는 返轉이 큰 편이며 그 위에는 三山形 고사리紋의 귀꽃이 조각되었다. 落水面에는 기와골이 없으나 各面的 合角에 隅棟이 표시되었으며 경사는 완만한 편이다.

相輪部는 八角의 露盤과 花紋이 조식된 覆鉢위에 寶蓋를 얹었으며 寶輪과 寶珠까지 남아 있어 다른 浮屠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部材가 남아 있는 편이다.

이 浮屠의 건립연대는 塔碑가 있으므로 碑文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그 연대는 高麗 禮宗 二年(九七七 A·D)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元宗大師慧眞塔의 樣式手法을 살펴 보았는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浮屠는 기단부 상대부터 塔身, 옥개석, 상륜이 八角의 평면을 이루는 八角圓堂의 기본형을 지키고 있으나 지대석은 方形이다.

둘째, 기단부에 있어서 下臺石이 方形인 것과 中臺石이 雲龍紋으로 彫된 것이 주목을 끈다. 더우기 特異한 것은 중대석 중앙에 龜趺形을 놓고 그 좌·우에 龍을 배치한 것이다.

셋째, 塔身の 四面에 門戶形을 조각하고 나머지 四面에 四天王立像을 배치한 것은 각각 그 좌·우의 門戶를 지키기 위한 배려였을 것이다.

넷째, 옥개석은 椽木이나 기와골 등의 표시가 없으므로 목조건축을 모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八隅轉角의 返轉이 강하고 큼직한 귀꽃紋이 장식되어 있어 웅장한 옥개를 이루고 있다.

다섯째, 相輪部의 보개석은 옥개를 그대로 옮긴 것처럼 八隅轉角의 귀꽃이 같은 형태이다.

이 浮屠는 같은 곳에 건립되어 있는 高達寺址浮屠(국보 제四호)를 모범으로 하였으나 기단부에서 年代의 降下가 보이고 다른 부분에서도 또한 그러하다. 그리하여 初期의 人 過渡 형태를 살피는데 좋은 遺例라 하겠다.

(六) 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보물 제一〇五호, 충청남도 瑞山郡 雲山面 龍賢里 普願寺 소재, 現高四·七m)

相臺石부터 屋蓋石까지 八角의 平面을 유지하고 있어 八角圓堂型의 기본양식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四枚의 板石으로 結構된 八角地臺石 위에 건립하였는데 上面에는 별다른 시설없이 기단부를 받고 있다.

下臺石은 측면석과 상면석으로 이루어 졌는데 측면에는 각 면에 一區式的 眼象을 조각하고 그 內面에 각기 형태를 달리한 獅子像을 一座씩

두드러지게 陽刻하였는바 각양각색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別石으로 조성된 上面石은 下端部에 굽음돌려 괴임단을 이루었고 上面에 이르면서 雲龍紋을 조각하였는데 龍頭의 부리부리한 눈과 코, 입, 胴體의 비늘등이 寫實的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八角의 모서리마다 立狀의 귀꽃紋을 장식하였는바 그 표면의 고사리紋이 流麗하다. 中臺石은 一石으로造成된 浮屠塔의 竿柱形인데 八面에는 隅柱등 아무런 표시도 없다.

上臺石도 一石으로造成하였으며 下面에는 三段의 낮은 받침을 刻出하여 中臺石 괴임대와 대칭되게 하였고 그 밖으로 單葉 一六瓣의 伏蓮을 조각하였는데 각 모서리와 각변에 一瓣씩 배열하였다. 그 상단부는 一條帶를 둘러 甲石形을 이루고 流麗한 괴임단을 마련하였다. 이 괴임단은 각 모서리에 童子柱를 세우고 欄干까지 돌렸으며 그 間地에는 花紋을 조각하였다. 그리고 上臺에는 一條帶를 둘러 甲石形을 취하였는데 그 上端은 上面에서 突起된 형태로 돌려졌다. 上面에는 낮은 二段의 괴임을 彫出하여서 塔身석을 받고 있다.

塔身은 기단부 중대석과 같이 流麗한 편인데 각 면에는 兩隅柱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八面에는 모두 조각으로 장식되었으니 素紋인 中臺와는 대조적이다. 전·후 양면에 門扉形과 門鐮形을 조각하고 그 좌·우에는 각각 四天王像을 양각하였는데 頭光의 火焰紋이 주목되며 나머지 좌·우측의 二面에는 높은 冠을 쓰고 있는 人物立像이 조각되어 있다.

옥개석은 두껍고 廣大한 편인데 추너부에 내려오면서 점차 얇아졌다. 下面에는 三段의 옥개받침이 刻出되고 그 밖으로 橡木이 조각되어 목조 건축의 옥개를 모방하였음을 곧 알겠다. 낙수면은 정상부에서 경사가 급하며 轉角部에는 귀꽃이 立狀形으로 조각되었는데 표면의 고사리紋이 流麗하다. 相輪部는 큼직한 覆鉢이 남아있고 그 위에 寶輪들이 차례로 놓여있는데 覆鉢에는 큼직한 單葉 八瓣의 伏蓮이 조각되었다.

現地に 건립되어 있는 塔碑의 末尾에 建碑年代를 高麗 第五代 景宗 三年(九七八 A·D)이라 하였으니 이 浮屠塔의 건립연대를 九七八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것 같다.

이상과같이 法印國師寶乘塔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浮屠는 지대석부터 기단부, 塔身, 옥개석, 상륜부등 全部材가 八角의 平面으로 典型的인 八角圓堂型 浮屠이다.

둘째, 기단부의 下段 측면에 眼象內의 獅子를 一座씩 배치하여 先代의 양식수법을 본받고 있으나 上段이 蓮華臺石이 아니고 雲龍紋으로 이루어진것은 주목된다.

셋째, 塔身석은 전·후 兩面의 門戶形 이외에 四天王立像과 二軀의 人物像을 배치하여 全面에 滿彫하였는데 이것은 아무 조각이 없는 기단부 중대석과는 대조적이다.

넷째, 옥개석은 廣大하여 重厚할것 같으나 八隅轉角의 귀꽃과 頂面의 伏蓮紋 추너부의 平薄으로 鈍重感은 면하고 있다.

다섯째, 相輪部는 覆鉢이나 寶輪등에 조각이 있어서 素紋의 옥개나 수면과 오히려 잘 조화되고 있다.

이 浮屠는 전체의 比例에서 균형미를 잃고 있으나 역시 初期的인 過渡 형태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라 하겠다.

(七)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보물 제三五二호,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소장, 원위치는 경기도 楊平郡 龍門面 延壽里 菩提寺址, 現全高二·七m)

花崗岩으로 造成된 八角圓堂型으로 현재의 상태는 地臺石이 결실되었으나 기단부위에 塔身을 安置하고 옥개석을 덮은 典型的인 一般型浮屠이다.

下臺石은 八角으로 上面 주변에서부터 측면 上部에까지 蓮瓣이 새겨져있고 八面의 각 측면 기능에도 蓮瓣이 조각되어 있어서 마치 蓮瓣으로 眼象形을 이루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 眼象形內에는 獅子가 一座씩 양각되어 있어 신라시대 석조부도의 眼象內獅子像을 연상케 한다.

中臺石도 八角의 平面으로 상·하 二段으로 이루어졌으며 下段은 각

측면에 雲中에서 두손을 合掌한 迦陵頻伽를 조각하였는데 각 모서리와 上段部에 파손이 심하다. 上段 中臺石은 각 모서리가 파손되었으나 中央에 天衣자락을 날리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奏樂天人坐像이 양각되었는데 파손과 마멸이 심하여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上臺石은 一枚石으로 造成된 八角蓮華臺石이다. 下面에는 蓮瓣中央에 花紋을 장식한 八葉의 仰蓮을 조각하고 측면에는 蓮잎을 上面 주위에서 부터 측면 상부 兩隅에 조각하였으며 각 모서리에는 花束柱를 장식하였다. 그리고 上臺石 上面에는 三二葉의 複瓣 伏蓮의 庇임과 角形二段의 庇임을 마련하여 塔身을 받고 있다.

塔身도 八角平面으로서 一石으로 造成되었으며 각 측면에 兩隅柱가 刻出되었는데 그 내면에는 전·후二面に 門扉形을 조각하였으며 그 밖의 六面에는 神將像을 조각하였다.

屋蓋石은 전체적으로 목조건축의 세부양식을 충실히 모방하고 있으니 우선 落水面에 있어서 기와를 덮은 기와골과 추녀마루가 표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처마에는 副緣이 달린 緣木과 기와 문양이 조각되었으며 추녀 밑의 받침에는 花紋과 飛天像이 교대로 배치되었고 八隅의 귀퉁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할 뿐이다. 옥개석 頂面은 별다른 조각은 없으며 四葉의 複瓣蓮華紋을 擦柱孔주위에 조각하여 相輪部를 받고 있다.

相輪部는 部材가 결실되고 寶珠石 하나만이 놓여있는데 연봉形이 아니고 火焰紋이 조각된 寶珠이다.

이 浮屠의 塔碑에 의하면 高麗 太祖 二二년(九三九 A·D)에 塔碑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浮屠塔의 건립연대도 이 시기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것 같다.

이상과 같이 大鏡大師玄機塔을 살펴 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대석은 결실되었으나 기단부, 탑신, 옥개석등 全部材가 八角의 平面을 이루고 있어 典型的인 八角圓堂型浮屠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단부에 있어서 庇임대의 표현이 강하고 특히 上臺石이 廣大

하여 넓직한 기단부 庇임대와 잘 어울리고 있다.

셋째, 탑신석은 전·후면에 門戶形을 조각하고 그 밖의 六面에 神將像을 조각하여 장중한 탑신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화사한 탑신 庇임대와 잘 어울린다.

넷째, 옥개석에서 副緣이 달린 椽木形과 기와골의 표현등 목조건축의 細部를 모방하고 있는데 특히 하면의 받침부에 飛天像을 교대로 배치하여 더욱 주목을 끈다. 이러한 수법은 先代인 신라시대 浮屠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浮屠가 신라말의 양식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겠다.

다섯째, 寶珠가 연봉形이 아니고 火焰紋에 싸여있는데 여기에서도 장식적인 意匠을 볼 수 있다.

(八) 興寧寺澄曠大師寶印塔(강원도 寧越郡 水周面 法興里 興寧寺址 소재, 現全高 二·七m)

八角圓堂型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二枚石으로 구성된 方形의 지대석위에 건립되었다. 지대석위에 八角의 下臺石을 놓았고 그 위에 蓮華臺石이 있는데 下臺의 각 측면에는 細長한 眼象을 一區式 음각하였으며 上端은 甲石形을 이루고 있다. 下臺石위에 놓인 연화대석에는 八瓣의 伏蓮이 둘러졌는데 각 모서리에 一瓣의 複葉이 배치되었으며 그 瓣端部에는 一座석의 귀퉁이 조각되어 있다.

中臺石은 一石으로 造成되었는데 八角의 塔身形으로 각 측면에는 兩隅柱가 정연하게 彫出되었다. 圓形의 上臺石은 下面에 角形과 圓弧、角形의 순으로 八角의 받침이 刻出되고 그 위로 측면에 單葉仰蓮이 二重으로 조각되었는데 蓮瓣은 상하 一六瓣씩으로 도합 三二瓣의 화사한 蓮華臺石이라 하겠다.

塔身은 上·下端이 좁고 배가 부른 八角의 鼓腹形인데 鼓腹形이라 하여도 각면의 平面은 유지되었으며 별다른 조각이 없이 前·後 兩面に 太條陽刻으로 門扉가 조각되어 있다. 八角屋蓋石은 역시 一石造成인데

그 下面의 처마部에는 낙수홀등 별다른 조각이 없고 중심부에는 높직한 八角의 孤形받침이 彫出되어서 탑신석 상단부와 맞도록 되어있다. 이 八角孤形받침의 주위에는 다시 넓은 段을 이루고 그 안에 蓮瓣을 彫飾하여 장식적인 意匠을 보이고 있다. 낙수면은 頂上部에서는 약간 급한 경사를 보이지만 점차로 완만해져서 전체적으로 平薄한 느낌을 주고 있다. 八角마다의 合角이 뚜렷하고 직선형의 처마와 가벼운 추너가 마치 신라시대 석탑의 옥개와도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더우기 返轉이 있는 八角轉角의 上端에 귀꽃이 조각되어 있어 더 한층 경쾌한 느낌을 준다.

옥개석 頂面에는 각 모서리에 複葉의 伏蓮 一瓣씩이 조각되어 도합 八瓣이며 그 위에 一段의 角形·八角괴임을 각출하여 八角竿石을 놓아 相輪部를 형성하였는데 竿石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다.

寶蓋石도 八角으로 頂面에는 별다른 조각이 없으나 一段의 角形괴임을 각출하여 그 위의 部材를 받도록 하였는데 그 중심에 擦柱小圓孔이 있고 그 위에는 一石으로 조성된 蓮蕾形의 寶珠를 얹어 간략한 相輪을 삼고 있다.

現地에 남아있는 塔碑에 의하면 高麗 世二代 惠宗年間(九四四~九四五 A·D)에 탑비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浮屠塔의 건립연대도 이 시기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것 같다.

이상과 같이 澄曉大師寶印塔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浮屠는 지대석은 方形이나 기단부의 각부재와 탑신, 옥개, 상륜등 全部材가 八角의 平面을 이루고 있어 典型的인 八角圓堂型이라 하겠다.

둘째, 기단부의 하대석에서 측면석에 眼象을 모각하고 八隅에 귀꽃이 장식된 伏蓮石을 그 위에 놓은 형식은 先代인 신라시대 浮屠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셋째, 탑신석은 八角의 平面이나 상·하단이 좁아들어 鼓腹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八角의 平面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固守하고 있어 주목된다.

넷째, 옥개석은 목조건축을 모방하지 않고 석탑의 옥개형을 취하였는데 추너部가 각 모서리에 이르러서도 反曲이 없는 直線形이어서 주목된다.

다섯째, 相輪의 높직한 竿石과 寶蓋는 인상적이다. 각기 기단부의 중대와 옥개석을 축소한 것같은 형태이며 조식도 그대로 옮긴것 같다.

이 浮屠는 전체적으로 보아 간결한 형태로서 華奢하게 각부를 彫飾한 장식적인 浮屠와는 대조적이라 하겠는데 기단부에서의 上·中·下臺의 均정한 比例, 塔身 및 屋蓋石과 相輪部등의 樣式手法은 역시 初期的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면들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八基의 浮屠를 각기 각 부분을 살펴보고 그 末尾에 內容을 정리 요약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考察은 각기 浮屠別이므로 高麗初期의 浮屠라는 큰 메드리를 생각해 볼때는 종합 집약된 內容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하여 八基의 考察內容을 여기에 종합해봄으로써 결론에 보다 가까워지리라 생각되는 바 다음과 같이 基壇部, 塔身部, 屋蓋石의 三部材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기단부에 대한 內容인데 平面구성이 거의 全部材가 八角임을 알 수 있고 下臺石에서의 下段 표면장식은 眼象과 眼象內의 獅子등이며 上段은 蓮華臺石 아니면 雲龍紋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下臺石에서의 조식은 先代부터 널리 쓰여지고 있었다.

中臺石도 雲龍紋과 眼象으로 장식된 竿石形으로 先代作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수법이다.

上臺石은 연화문이 單葉 혹은 複葉의 차이가 있고 單瓣 重瓣의 구별이 있으며 蓮瓣內의 花紋 장식이 있고 없는 차이는 있으나 모두 仰蓮帶를 이루고 있음은 공통된 점이다.

둘째, 탑신부에 대한 內容인데 탑신석은 그 괴임대부터 모두 八角의 平面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탑신을 받든 괴임대는 높직한 一, 二段을

마련하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혹은 낮게 각출한 괴임으로서 탑신을 안치한 것도 있으나 여하튼 괴임대에 대한 장식으로서의 의匠은 역역히 나타나 있다.

탑신 각 면에는 兩隅柱를 모두 각출하여 一般型石塔에서의 탑신부 屋身의 兩隅柱를 연상케한다. 특히 측면에는 前·後면이 아니면 前면에만 이라도 반드시 門戶形을 조각하였으며 어떤 浮屠는 四天王像、神將像、人物像등을 조각하여 先代부터의 장식성을 거침없이 계승하고 있다.

셋째, 옥개석에 대한 내용인데 平面구성은 八角으로 목조건축의 細部를 모방하여 椽木과 기와골 막새기와 등을 모각한 것과 石塔形을 모방한 落水面 형식의 두가지로 구별된다. 석탑형의 낙수면이라 하더라도 八面合角머리의 隅棟은 아주 굽직하게 표현하여 역시 목조건축의 一面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 八隅의 轉角에 귀꽃이 장식되어 있어 浮屠屋蓋石의 典型은 잃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두가지 종류의 옥개석 형식은 先代인 신라시대 浮屠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고 있는데 역시 先代作의 정통성을 잃지 않고 있는 고려시대 초기의 浮屠를 임을 더욱 느끼게 한다.

三 中期浮屠의 特殊形式

高麗時代에 있어서 初期인 一〇세기를 지나 一一세기 이후가 되면 신라시대에 定立되어 그대로 계승된 八角圓堂型의 형식을 떠나 전혀 특이한 형식을 보이는 浮屠塔이 건조되었으니 필자는 이들을 一般型에서 벗어난 형태라 하여 特殊形浮屠塔이라 칭하고 있다. 本章에서 特殊形式의 浮屠라 한것은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特異한 형태의 浮屠塔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前代에 없었던 특수한 형식의 浮屠塔이 高麗時代에 이르러는 어떠한 特殊形이 나타났는가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特異한 자기 양식과 一般型浮屠塔과의 비교에서 더욱더 뚜렷한 특수

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런데 一〇세기에 이르러 건조된 浮屠塔에서도 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은 八角圓堂型의 一般型浮屠인 데 이 浮屠塔이 건조되는 한편 特異한 樣式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데 本章에서 살펴볼려고 하는 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과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은 一〇세기에 건조된 浮屠塔이며 令傳寺普濟尊者舍利塔은 이후에 건조된 浮屠塔이다. 이들 三基는 한국 의 一般型浮屠塔의 典型인 八角圓堂型에서 벗어나 전혀 별개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九) 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보물 제一九〇호, 서울 景福宮소재, 원 위치는 강원도 原城郡 富論面 鼎山里 居頓寺址 現全高二·六八m)

이 浮屠는 원위치에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대석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하대석부터 놓여있다. 八角下臺石 각 면에는 일반적인 眼象이 一區씩 배치되고 그 안에 花形이 양각되었다. 上面에는 甲石形을 刻出하고 一六葉의 複瓣蓮華紋이 있는데 그 중앙에 三段의 물딩이 있어 중대석을 받고 있다. 중대석 또한 八角으로 상·하에 테를 돌리고 各면의 좌·우에 一段의 굴곡이 있는 간략한 眼象을 두었으며 그 眼象內面에 全面에 걸쳐 一區씩의 八部象像을 조각하였다. 상대석은 瓣內에 花形을 나타낸 單瓣蓮華 一六葉씩을 상·하 二重으로 돌려 仰蓮을 삼았으며 上面에는 弧形을 중심으로 그 상·하에 角形을 按配하여 八角三段의 괴임을 마련하였다.

塔身은 八角으로 隅角에는 柱形이 있으나 花紋帶로 장식하였고 各면에는 전·후 양면에 門扉形과 門鑰形을, 좌·우 양면에 窓戶形을, 그리고 나머지 四面에는 四天王立像을 陽刻하였다.

屈蓋石 역시 八角으로 탑신과 接하는 곳에 四段반침을 表出하고 그 위에 角形椽木을 모각하였다. 추녀도 얇고 隅角에는 返轉이 뚜렷하다. 옥개 상면에는 八條隅棟形이 曲線을 그리며 흐르다가 轉角에 이르러 花形을 달았고 落水面에는 기와골을 모각하였으며 추녀부에 암막새, 수막

새를 자출하는 등 무조건축의 지붕을 모방하고 있다. 相輪部는 頂上에 八角形의 寶蓋가 없었음을 뿐이다.

原位置에는 浮屠塔碑가 서 있는데 이 碑文에 의하면 제 八대 顯宗一六年(一〇二五 A·D)에 塔碑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浮屠도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一般型 浮屠塔인 圓空國師勝妙塔을 살펴 보았는데 이 浮屠에서는 우선 平面의 기본구성이 전체 八角으로 特殊型의 三基와는 근본부터 다르다. 그리고 각부 구조와 施紋에 있어서도 단조로운 面을 보이고 있으며 先例들과 같이 불교적인 내용의 조각을 뿐이다.

(一〇) 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국보 제一〇二호, 서울 景福宮소재, 원위치는 충청북도 中原郡 東良面 荷川里 淨土寺址, 現全高一·五五m)

이 浮屠塔의 지대석은 方形으로 花崗岩 石材이다. 長大石을 여러개 結構하여 方形을 이루었는데 石材가 浮屠塔과 같지 않고 治石手法이나 짜임새등도 부도탑 조성의 기법과 맞지 않은 것 같아 원위치에서 함께 옮겨온 것인지 의심스럽다.

우선 구조를 살펴보면 八角圓堂의 기본형을 잃지 않으면서 일부에 새로운 창안을 加味하여 기발한 착상에 주목을 끈게한다. 基壇部 위에 塔身이 놓이고 그 위에 옥개석과 相輪이 장식된 형식인데 八角의 높직한 지대석위에 複瓣 蓮華紋이 장식된 伏蓮石을 얹었고 八角中臺 各 면에는 고려시대 특유의 眼象이 方形에 가까우며 眼象內에는 雲龍紋을 滿彫하였다. 上臺石은 얇고 圓形에 가까운데 밑에는 單瓣 仰蓮을 조각하였고 蓮瓣內는 다시 花紋을 장식하였는데 下臺石의 伏蓮과 대칭으로 一六瓣을 돌렸다. 上臺石 上面은 周緣을 따라 八角으로 낮은 一段이 있고 중앙에는 별다른 시설없이 塔신을 받고 있다.

塔身은 이 浮屠塔에서 가장 특징을 나타낸 부분으로서 圓球形을 이루고 있다. 표면에는 중앙에서 二條의 陽刻線을 橫으로 돌리고 다시 頂上

에서 十字로 二條의 동일한 陽刻線을 내려 상·하를 연결하였으며 측면 四方의 교차점에는 圓座內에 子房이 있는 花瓣을 조각하여 단조로운 표면을 장식하였다. 塔身석 頂面에는 一六瓣의 伏蓮을 돌려 장식하고 다시 一段의 角形괴임을 圓形으로 마련하여 圓筒形 竿柱石을 받고 있는데 이 시설은 下面에도 대칭적이다.

옥개석에는 별다른 조식은 없으나 八角 귀퉁이에 귀퉁이 있어 주목된다. 즉 지금은 대부분 없어졌지만 轉角마다 높직한 귀퉁이를 달았는데 그 모양은 마치 큼직한 수막새와도 같다. 옥개석 下面은 샅모양으로 깊숙히 파여져 塔身위에 놓인 圓筒形 石材위에 얹혔고 그 주위로 활달한 飛天이 조각되었다. 옥개석 상면은 기와골림이 아니고 石塔의 옥개형인데 八隅의 合角이 뚜렷하다.

相輪部는 옥개석 頂上面의 蓮華座위에 형성된 것인데 현재는 전혀 部材를 남기고 있지 않다.

塔身이 圓球形이 된 것은 多層石塔의 覆鉢形에서 얻은 착상인지 모르지만 기발한 意匠이 분명하며 넓게 퍼진 기단부는 안정감을 준다. 한편 특이한 石材에서 오는 質感도 있어 우아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주고 있다.

이 浮屠塔은 이에 따른 塔碑가 있으나 이 碑文에는 浮屠塔 건조의 상 황이나 연대를 밝혀놓은 내용이 없다. 다만 碑文 末尾에 「歲次丁巳九月日立」이라 하여 탑비의 건립연대를 밝히고 있는데 「歲次丁巳」는 명문의 앞뒤 내용으로 보아 高麗 第 八대 顯宗八年(一〇一七 A·D)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浮屠塔의 건립연대도 같은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 淨土寺弘法國師의 浮屠塔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本章에서 의도 하듯 특수형부도탑이라는 개념에서 弘法國師實相塔을 검토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기단부에 있어서 下臺나 中臺石이 八角의 平面을 이루고 上臺도 결국은 平面이 八角일지나 塔身석을 받는 上面은 평평한 圓球形을 이루고 시설이 없이 圓球形의 塔신을 안치하고 있다.

둘째, 塔身부에 있어서 圓球形을 이룬 것은 이 浮屠塔에서 가장 특이

한 부분이며 기발한 착상인 것이다. 앞에서 말하였듯이 석탑의 覆鉢形에서의 착안인지는 모르나 이러한 형태의 탑신석은 이제까지 그 遺例가 없다.

셋째, 옥개석에 있어서의 특징인데 上面의 낙수면이 石塔形이던기와 栞形이던 그 下面의 구성은 모두 平行形이었다. 그러나 이 實相塔에서 는 우묵하게 곡선을 그리며 깊숙히 파져 마치 샷갓모양을 이루고 있다 는 것인데 이러한 형태의 옥개석은 아직 先例가 없는 일이다.

네째, 탑신석과 옥개석 사이에 竿柱石이 있는 점이다. 모든 浮屠塔은 塔身석위에 바로 옥개석이 놓여있다. 그러나 이 實相塔에서는 塔身석위에 圓筒形의 竿柱를 세우고 그 위에 옥개석을 덮고 있다.

이와같이 弘法國師實相塔의 특이한 몇가지 점을 살펴보았다. 역시 先例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의 특징을 지적해 보았다.

(二)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국보 제101호, 서울 景福宮소재, 원위치는 강원도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法泉寺址, 現全高六·一 m)

이 浮屠는 구조상으로 보아 八角圓堂이라는 기본형에서 벗어나 平面 方形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樣式을 보이고 있다.

기단부는 여러개의 長大石을 結構하여 넓게 자리한 地臺石위에 구성되었는데 地臺石 上面에는 낮은 階一段을 마련하고 그 위의 部材를 받았다. 언뜻보면 기단부의 구조가 七層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하층기단이 五層으로 구성되고 상층기단이 二層石材이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자층의 部材에는 조각이 가득히 장식되었고 上部로 가면서는 구성은 층층의 높이와 넓이에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지대석의 네귀퉁이에는 龍의 발톱모양의 조각이 地面까지 닿아서 地上에 밀착된 듯 안정감을 한층 돋이운다. 그리고 最上層의 甲石에는 화려한 帳幕形의 四面에 드리워져 莊嚴을 더해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층의 각 면에는 眼象과 雲紋 蓮華紋 草花紋 寶塔 神仙 등이 빈틈없이 가득히

조각되어 있어 조각장식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탑신부는 塔身석과 옥개석이 자기 一石으로 조성되었는데 塔身석의 남쪽 면은 가운데 門扉形이 있고 그 좌·우와 上面間地에 窓口形 蓮華紋 花紋 花枝 등이 가득히 조각되어 있다. 옥개석은 天蓋形으로 帳幕이늘어지고 옥개석 낙수면에 해당하는 轉角部에는 佛·菩薩 등이 조각되었으며 네귀퉁이의 轉角에는 크게 返轉을 두고 鳳凰을 一座씩 배치하였다. 옥개상면은 石塔形으로 기와골이 없는 落水面이며 네귀퉁이의 隅棟마루가 두들하게 이루어졌다.

相輪部도 四面이 같은 조식문양으로서 평평한 仰花石위에 覆鉢 寶輪 寶蓋 寶珠紋 등의 各部材가 층층이 올려져 있으며 그 全面에도 蓮華紋 花紋 眼象 連珠紋 등 다양한 문양이 가득히 조식되어 있다.

墓塔 전체의 형태를 보아도 자유로운 意匠으로 조형되었을 뿐 아니라 조식이 풍부하고 또한 정교하다. 그 반면에 雄建한 기풍이 없고 기교에 치우친 점이 눈에 띄지만 고려시대의 浮屠로서는 우수한 작품이라 하겠다. 基壇 네귀퉁이에 獅子가 一軀씩 있었으나 지금은 볼 수 없다.

原位置에는 塔碑가 서 있는데 碑文에 의하면 탑비의 건립이 제13대 宣宗二年(1085 A·D)임으로 이 浮屠塔도 이 시기에 건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과같이 智光國師의 浮屠塔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造形적으로나 표면장식의 조각사상으로나 그 우수성과 기발한 意匠은 어디에도 비할데 없음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浮屠塔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단부부터 전체의 平面이 八角圓堂型이라는 一般型 浮屠의 기본형에서 완전히 벗어나 平面方形을 기본으로 하는 特異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둘째, 기단부 구성에 있어서 方形의 상·하층 기단형성은 一般型 石塔과 같으나 특히 하층기단에서의 三段階입대는 이 浮屠塔에서 처음보는 예인 것이다.

셋째, 全面에 조각한 내용이 寶塔, 寶蓋, 門扉形, 蓮華紋처럼 불교적이며 先例에서도 볼 수 있었던 장식도 있으나 道敎의인 雲上界의 神仙이라던가 帳幕紋처럼 처음보는 紋樣이 多樣하여 주목된다.

넷째, 塔身석 좌·우면에 櫺窓을 개설하고 주변에 여러가지 문양을 조각하였는데 그것이 이른바 페르샤風이어서 주의를 끈다. 先例에서 볼 수 없는 다채로운 문양이 浮屠塔全面에 滿彫되었음은 이미 살펴본 바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東洋의 이 아닌 이러한 施紋의 사실은 당시의 東西交涉를 연구하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와같이 智光國師玄妙塔의 특수한 몇가지 점을 살펴 보았는데 역시 先代의 浮屠塔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의 특징을 지적할 수 있었다.

- (一) 令傳寺址普濟尊者舍利塔(보물 제三五八호, 서울 景福宮 소재, 원위치는 강원도 原州市臺庄洞令傳寺址, 現全高 四·一 二m)

이 浮屠塔은 浮屠라고 하기 보다는 一般型石塔과 같이 二층기단위에 三층의 塔身을 건립하고 頂上部에 相輪을 장식한 형식이어서 一見하여 佛塔이 아닌가 착각한다.

여러장의 長大石으로 짜여진 대석위에 하층기단을 놓았는데 하층기단 면석에는 兩隅柱와 一撐柱가 모각되어 있으며 甲石上面에는 물딩으로서 상층기단을 받고 있다. 상층기단 면석에도 兩隅柱와 一撐柱가 있으며 상층기단 갑석에는 下面에 낮은 副緣이 있다. 甲石上面에도 물딩을 마련하여 塔身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返轉된 높직한 一枚의 碑印들을 끼워놓고 그 위에 塔身부를 형성하였다.

塔身부는 塔身과 옥개석을 각기 一石씩으로 造成하여 重積하였는데 각 塔身석에는 兩隅柱가 정연하고 각종 옥개석의 받침은 四段씩이며 頂面에는 碑印단을 마련하여 그 윗층의 部材를 받고 있다.

相輪部는 露盤과 覆鉢 寶輪 寶珠 등이 놓여 있으며 蓮華紋이 조각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浮屠는 浮屠塔이라고 하기 보다는 佛塔이라 칭하는 것이 좋을 정도로 一般型石塔의 양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곧 特殊한 점이다.

이 浮屠塔을 原位置에서 옮길때 塔內에서 舍利莊嚴具와 함께 誌石이 나왔는데 이 銘文에 의하면 제三四대 禪王(一四一—一三八 A·D)이 浮屠塔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特殊型浮屠塔을 고찰함에 있어 浮土寺弘法國師實相塔과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 令傳寺普濟尊者舍利塔들을 살펴 보았는데 이들은 역시 기발한 착상으로 구성과 조식에서 特異性을 발휘했으며 설사 표면 장식이 전혀 없는 普濟尊者舍利塔이라 하더라도 先例들의 八角圓堂型을 떠나서 平面方形의 一般型石塔의 양식을 취함으로써 特殊한 면을 보이고 있다.

四 後期の浮屠

高麗社會는 一二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武人政權이 一三세기에 들면서 그대로 강해지고 더구나 제二三대 高宗年間에는 二八年間(高宗 一八〇—一八六, 一三三—一三五九 A·D) 六차에 걸쳐 蒙古가 침범하여 여러 번 지경에 이르렀었다. 물론 高麗의 武人政權은 이에 대하여 굳센 抗戰을 벌였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명과 문화재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으며 특히 慶州의 皇龍寺九層木塔과 大邱八公山の 符仁寺 大藏經板이 이때에 소실되었다. 그리하여 大藏都監을 두고 大藏經의 再彫에 착수하여 一六년간에 걸쳐서 高宗三八年(一二五—一三三 A·D)에 完성을 보게 되어 오늘날 海印寺의 八萬大藏經을 남기게 되었으니 一三세기의 고려왕조는 정치적으로나 사회·문화등 모든 면에서 격동기였던 것이다 이후 高麗는 蒙古의 간섭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末期를 맞게 된다.

一三세기의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一四세기 말인 고려왕조의 말기까
 지 약 二세기간을 高麗後期라 할 때^② 이 시기의 諸文化的 所産은 어떠
 한 상황이었을까 하는것은 큰 論題일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격동기인
 고려말기 사회에서의 浮屠 建造는 어떠한가 하는것을 살펴 볼려는
 것이다.

고려시대 후기에 건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浮屠塔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건조연대가
 뚜렷한 浮屠로 寶鏡寺圓眞國師浮屠, 麟角寺普覺國師塔, 令傳寺普濟尊者
 舍利塔, 太古寺圓證國師塔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그 主人公과
 소속 寺院이 확실하며 絶對年代를 가지고 있어 같은 시기에 건립한 연
 대미상의 浮屠들을 고찰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들이라
 하겠다.

(一三) 寶鏡寺圓眞國師浮屠(보물 제四三〇호, 경상북도 迎日郡 松
 羅面 中山里 寶鏡寺境內소재, 現全高 四·五m)

이 浮屠는 平面八角을 기본으로 삼은 八角圓堂型으로 浮屠의 중심에
 있는 長大石을 이용하여 넓은 方形의 塔區를 마련하고 그 중앙에 地臺
 石을 놓아 塔基를 마련하였다.

下臺石은 八角의 石材 三段을 쌓았는데 밑의 二段은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고 上段의 一石은 伏蓮石으로 上面에 細長한 單瓣蓮華 三二葉
 이 조각되었고 그 중앙에 角形 二段의 괴임이 있다.

中臺石 또한 八角인데 下面 중앙에 있는 一段의 받침을 중심으로 三
 二葉의 單瓣蓮華를 돌려 仰蓮을 삼았는데 瓣端은 뾰족하고 중앙에 縱線
 隆起가 있어 이 浮屠의 건조연대로는 異型的인 형식이라 하겠다.

上臺石 위에는 높직한 괴임이 있어 八角塔身을 받았는데 탑신은 매우
 높아져서 八角 石柱와 같다. 각 모서리에는 隅柱가 표시되고 一面에는
 門鑰形만이 조각되었다.

屋蓋石 또한 八角인데 그 下面에는 隅角을 향하여 중심에서 편은 隆

起線이 있을 뿐 옥개석상면의 경사는 완만하며 轉角에 귀퉁이 있다. 추
 너는 두꺼운 원으로 밑은 轉角에 이르러 현저한 返曲을 보인다.

相輪部에는 八葉 蓮華의 仰花위에 橫帶와 四方에 花形을 按配한 球形
 에 가까운 覆鉢이 놓이고 다시 仰花形의 一石이 놓인다음 寶珠를 엮은
 完形으로서 보존도 양호한 편이다.

이 浮屠는 塔身이 지나치게 길고 큰 탓으로 더욱 高峻한 感을 주며
 기본조형에 있어서도 폭이 좁아 안정감이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간
 락화의 경향이 뚜렷하여 각부 조각도 심약으로 흠렸다.

現地에는 이 浮屠의 塔碑가 있어 浮屠의 건조연대를 알 수 있으니 제
 二三代 高宗 一一年(一一二四 A·D)경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圓眞國師浮屠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기단부 下臺가 三段으로 이루어 졌으나 上段에만 蓮瓣이 조각
 되고 下部 二段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는 간략화된 下臺石이며 中臺石에
 도 조각이 없고 上臺에만 仰蓮을 돌리고 있다.

둘째, 탑신이 유난히 길어 안정감이 없어 보이며 자물통을 조각함에
 있어서 門扉의 조각이 없다. 그리고 각 면에도 細長한 兩隅柱 뿐이며
 아무런 조각이 없다.

셋째, 옥개석에 있어서 기와골이나 椽木등 아무런 조각이 없고 추녀
 의 返曲과 轉角의 返轉이 심하여 重厚한 느낌을 준다.

네째, 相輪部材는 완전하며 이 浮屠에서는 가장 화려한 조각들을 보
 이고 있다.

다섯째, 넓직한 方形의 塔區를 마련하고 浮屠를 세웠는데 역시 國師
 로 추종된 高僧이어서 높은 山 중턱에 塔基를 마련하고 石壇을 구성한
 것 같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역시 간략화의 경향이 역력함을 알 수
 있다.

(一四) 麟角寺普覺國師塔(보물 제四二八호, 경상북도 軍威郡 古老面 華北里 麟角寺境內소재, 現全高 二·四二m)

八角圓堂型의 기본형을 갖추고 있는 浮屠로 自然石으로 이루어진 地臺石위에 八角下臺石이 놓였는데 上面은 금한 경사를 이루고 중앙에는 얇은 八角과임이 각출되었으며 이 과임과 蓮接하여 작은 蓮華가 조각되었다.

中臺石 또한 八角인데 四面에는 넓은 框廓이 마련되고 그 안에 動物像이 陽刻되었으나 명확하지 않다.

上臺石도 八角이나 거의 圓形에 가까우며 밑에는 얇은 받침이 있고 주위에는 큼직한 蓮瓣八葉이 二條의 陰刻線으로 나타나 있다. 塔身도 八角으로 前面의 一面에는 框廓안에 「普覺國師靜照之塔」이라고 字徑 六cm의 楷書 제명八字가 있으며 後面에는 門扉形이 있고 나머지 六面에는 四天王立像과 蓮華座 위의 菩薩立像이 陽刻되었다. 舍利孔은 塔身上面에 있으나 莊嚴具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

八角屋蓋石 밑에는 얇은 받침이 있고 두꺼운 柱너밀은 轉角에 이르러 返轉되었다. 落水面의 경사는 급한 편이고 八條 隅棟이 내려와 끝에 작은 귀꽃은 장식하였다.

相輪部에는 寶蓋 仰蓮과 火焰에 쌓인 寶珠로 된 一石이 놓여있다.

이 浮屠는 전체적으로 보아 신라시대 이래의 八角圓堂型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형태나 조식의 鈍厚함은 시대적인 양식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普學國師塔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넓직한 지대석위에 기단부를 형성하였는데 線彫이기는 하나 상하대에 仰·伏蓮을 조식하고 특히 중대석에는 각면에 動物像을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장식적인 기단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탑신부에 있어서도 門扉形과 四天王像, 菩薩像등을 조각하여 기단부와 함께 장식적인 意匠을 보이고 있다.

셋째, 탑신석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正面에 「普覺國師靜照之塔」이라는 二行의 銘文이 있어 이 浮屠塔의 主人公을 곧 알 수 있다.

넷째, 옥개석은 기와골이나 椽木등이 없이 重厚하나 八隅轉角에 귀꽃紋이 있어 다소 장식적임을 느끼게 한다.

다섯째, 相輪部는 그리 화려하지 않으나 寶蓋와 仰蓮臺가 있고 火焰에 쌓인 寶珠가 있어 간략한 가운데서도 약간의 장식을 보이고 있다.

이 浮屠의 건립연대는 塔碑와 관제기록에 의하여 建塔의 연대를 제 二五대 忠烈王二二(二二九五 A·D)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같은 때의 건조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때는 後期에서도 末期에 가까우므로 역시 鈍重함과 간략화의 경향을 보인다.

(一五) 令傳寺址普濟尊者舍利塔東塔(보물 제三五八호, 서울 景福宮소재, 원위치는 강원도 原州市 臺山洞 令傳寺址, 現全高三·九二m)

이 浮屠塔은 神勒寺(경기도 驪州郡 北內面 川松里소재)에서 제三四대 禩王二二(一三七六 A·D)에 入寂한 普濟尊者의 舍利를 分舍利하여 二枚를 引導해서 一枚씩 奉安한 二塔中의 하나이다.

이 浮屠塔은 主塔과 東塔의 二基인데 主塔에 관해서는 本稿의 「特殊形式의 浮屠」章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여기의 東塔은 主塔과 같으며 건조연대 역시 禩王 一四(一三七八 A·D)인 것이다. 이때는 高麗의 末期로서 樣式에서나 장식면에 있어서 간략된 면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一六) 太古寺圓證國師塔(보물 제六一一호, 경기도 高陽郡 神道邑 北漢里 太古寺境內소재, 現全高 四m)

넓은 臺地위에 長大石으로 築壇을 구축하고 그 중앙에 長大石으로 方形의 塔區를 이루었다. 浮屠塔의 구성은 一般型과 같이 基壇위에 塔신을

안치하고 頂上에 相輪을 장식하였는데 기단부는 상·중·하대로 구성되었으나 下臺石은 方形이고 中臺石은 八角이며 上臺石은 圓形에 가깝다. 方形의 下臺石 측면은 각면에 兩隅柱와 二柱의 撐柱를 모각하고 上·下端에 甲石形과 楕圓形을 돌렸으며 三區씩의 長方額形이 이루어지고 있다. 上面에는 넓직한 伏蓮八瓣을 太彫하고 그 중심부에 一段의 皮임을 마련하여 中臺石을 받고 있는데 中台 八隅에는 圓柱形을 모각하고 각면에는 四葉의 蓮華紋을 큼직하게 장식하였다. 上臺石은 下面에 낮은 二段의 八角받침을 刻出하여 中臺石 上面에 놓이게 하였는데 측면에는 下臺 上面의 伏蓮과 대칭으로 太彫의 仰蓮八瓣을 돌리고 각 瓣內는 고사리紋으로 장식하였다. 上面은 별다른 조식이 없이 圓形의 낮은 皮임一段으로 塔心석을 받고 있다.

탑신은 圓形의 平面으로 표면에는 별다른 조각이 없고 上端部가 좁아 들어 마치 石鐘形과도 같이 보인다. 八角의 옥개석은 下面에 굽직한一段의 받침을 돌려 塔心 上端에 맞추어 놓았으며 그 밖으로 一六瓣의 蓮華紋을 돌려 장식하였다. 轉角에는 각면에 帳幕形紋을 배치하고 八隅轉角에는 큼직한 귀꽃紋을 장식하였다. 낙수면은 平薄하며 各 合角에 隅棟마루가 굽직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비교적 轉角部가 두꺼운 옥개석이다.

相輪部는 옥개석 頂面의 굽은 皮임위에 圓球를 상·하로 짚은 것과 같은 鼓腹形 부재를 놓았는데 표면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다. 이 위에 엮은 寶蓋石은 八角으로 下面의 처리와 낙수면의 형식, 八隅轉角의 귀꽃紋 등이 옥개석과 같아 마치 옥개석의 축소형으로 보인다. 寶蓋石 위에는 蓮華紋을 장식한 臺石一枚를 놓고 頂上에 寶珠石을 받치고 있다. 寶珠石은 方柱形인데 下部의 네모서리에 仰蓮을 一瓣씩 장식하였으며 上部의 寶珠는 四隅에서 舍珠하고 있는 형식으로 周緣에 火焰紋 등의 장식은 없다.

이상과 같이 圓證國師塔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의 다른 浮屠塔에서는 보기 힘든 浮屠殿이 넓직하게 마련되어 있어 주목된다.

둘째, 마치 地台와 같이 長大石으로 塔區를 시설하였다.

셋째, 기단부에 있어서 方形, 二角形, 圓形 등의 부재로 이루어져 통일성이 없어 보인다.

넷째, 塔心은 石鐘形을 연상케 하는 간결한 형태이다.

다섯째, 옥개석이 다소 장식적인 면을 보이고 있으나 重厚함을 면치 못하며 相輪部 역시 그러하다.

現地에는 塔碑가 서 있는바 末尾의 碑文에 의하여 제三四대 禪王一年(二三八五 A·D)에 建立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浮屠塔의 건조연대도 이 시기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것 같다. 一三八五年이면 高麗末期로서 다른 造形物에서도 많은 간략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을 때이다.

이상 高麗後期에 건조된 몇基의 浮屠塔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각기의 末尾에 특징적인 면을 요약 정리하였으나 여기에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보아 간략화의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寶鏡寺圓眞國師浮屠의 경우 기단부에 仰·伏蓮뿐이고 특히 塔心석에는 門扉形의 모각도 없이 자물통만을 조각하고 있어 前期의 浮屠를 에 비해 심한 생략화의 一面을 보이고 있다.

둘째, 각부의 조각이나 部材가 완전히 구비되어 있어도 조식 자체에 생략화와 형식화의 경향이 현저하게 보인다. 즉 麟角寺普覺國師의 경우만 보더라도 八角圓堂型의 典型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기단부에 있어서 상·하대의 仰·伏蓮이 거의 線彫로서 형식에 흘렸고 中臺石 各면의 動物像도 鈍重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塔心석을 안치하는 上臺石 上面에도 皮임대가 생략되어 아무런 시설없이 塔心석이 놓여 있다.

셋째, 造形에 있어서 통일성이 없이 규범을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浮屠塔은 어디까지나 불교적인 造形物이며 따라서 佛敎國이었

던 당시의 사회와 일반 佛家에서도 가장 獻誠의인 儀物로 진조되었어야 할 부도탑인 것이다. 예컨대 太古寺圓證國師塔에 있어서 기단부의 구성이나 탑신부와 상륜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규범을 벗어나 여러가지 형태의 部材가 混在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令傳寺址 普濟尊者舍利塔에 있어서는 分舍利한 舍利塔인데도 불후하고 主體되는 驪州神勒寺의 普濟尊者石鐘과 달리 일반적인 石塔形을 취하고 있어 그 特異함에 주의 를 끌게 한다.

이와같이 크게 세가지로 집약해 보았거니와 前期에 비하여 모두 퇴화하고 異型的이며 잔락화의 경향만이 지적되고 있다. 아마도 이 後期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격동기이고 또한 불안정한 면도 많이 있어서 이것이 곧 造形에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五 石鐘型 浮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신라 이래 유행했던 一般型浮屠인 八角圓堂型의 浮屠圓堂型의 浮屠만이였다. 그러나 한국의 石造浮屠에는 이밖에 「石鐘型」이라는 또 하나의 基本型이 있으니 本章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八角圓堂型 浮屠의 始源이 신라인 것처럼 石鐘型浮屠도 그 始源을 신라에 두고 있으며 유일한 신라 石鐘型浮屠의 유례인 太和寺址十二支像浮屠(보물 제 四四一호, 경상남도 蔚山市 鶴城洞 公園內所在)를 祖型으로 볼 수 있다.

이 浮屠의 基本構成은 長方形臺石과 그 중앙에 안치한 鐘形塔身部의 各一石으로 이루어졌다. 이 浮屠의 탑신은 最下端에 이르러 약간 좁아졌을 뿐 거의 수직의 身部를 이루었으며 中間 이하의 表面에 十二支像을 돌렸다. 그리고 中間部이 상은 차차 緩曲되면서 半球形을 이루고 頂上에 작은 突起를 남기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마치 寶珠形光背의 上部曲線과도 같다고 하겠다. 여하튼 전체 탑신의 모양이 글자 그대로 「石

鐘」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신라시대의 石鐘型浮屠를 모범으로 고려초기에 있어서도 石鐘型浮屠를 造成하여 그 遺例를 볼 수 있다. 金山寺 石鐘을 대표로 들 수 있으며 後期에 있어서는 神勒寺普濟尊者石鐘, 舍那寺圓證國師石鐘등을 들 수 있다.

(一七) 金山寺石鐘(보물 제 二六〇호, 전라북도 金堤郡 金山面 金山里 金山寺 境內소재, 現全高 二·二七 m)

이 石鐘의 구성을 살펴보면 基壇은 二段으로 매우 넓고 하층기단은 한번의 길이가 一·二·五 m, 높이 〇·八 m이며 상층기단은 한번의 길이가 八·五 m, 높이가 〇·六 m의 方形基壇이다.

이 기단은 臺石 面石 甲石으로 이루어졌고 상·하층 面石에는 佛像과 神將像이 조각되었는데 그 중에는 後代에 만들어진 것도 있다. 하층기단 四面에는 欄干을 돌렸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은 石柱가 남아있는 점으로 짐작되며 이 石柱에는 기이한 人物像이 조각되어 있다. 石壇 네 귀퉁이에는 四天王像을 세워 놓았다.

이 石壇 중앙에 一枚의 板石이 놓여 탑신을 받고 있는데 板石의 네 귀퉁이에는 獅子의 頭部만이 밖을 향하여 조각되었고 그 중심에 탑신 받침의 물당이 있는 주위로 複瓣 蓮華가 둘러져 조각되었다. 塔身은 平面圓形의 鐘形으로 下部의 주위에는 花紋帶를 둘러 흡사 梵鐘의 口緣帶의 양식과도 같다. 頂上에는 九마리의 龍이 조각되었는데 머리만 밖을 향하여 둘러싸고 그 위에 仰蓮이 조각된 二枚石이 있으며 頂上에 寶珠石이 얹혀있다. 이 浮屠는 자체의 造成手法과 주변의 장식조각등으로 미루어 고려초기인 一〇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一八) 神勒寺普濟尊者石鐘(보물 제 二二八호, 경기도 驪州郡 北內面 川松里 神勒寺 境內소재, 現全高 一·九 m)

이 浮屠는 地上에 石築으로 넓은 基壇을 築造하고 上面外周는 長大

石으로 둘러 甲石을 삼고 前面과 兩側面에는 계단을 깔고 그 중앙에 二枚의 板石을 엮어 二段의 탑신피임을 마련하였으며 탑신과 接하는 곳에는 돌담이 조각되었다.

탑신은 鐘形에서 퇴화되어 윗부분이 잘라진 포탄같이 되었는데 본래의 造形이 鐘形임은 곧 알 수 있다. 표면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고 탑신의 상·하는 수평을 이루었으며 탑의 頂上部에 火焰紋을 모자한 낮은 寶珠가 얹혀있을 뿐이다.

이 石鐘을 중심으로 안쪽에 石燈이 있고 뒷쪽에는 塔碑가 있어 寺域의 서북쪽 한강이 굽어보이는 이 언덕 일대를 당초부터 墓域으로 정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石鐘型浮屠는 고려말기의 名僧 懶僧 普濟尊者의 묘탑으로서 이러한 형태의 묘탑으로 가장 오래된 金山寺 舍利塔에서 간략화된 형태임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印度의 불탑형식에서 착안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이 같은 형식이 유행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이보다 간략화되고 형식화된 石鐘이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現地에 남아있는 塔碑에 의하면 塔碑의 건립연대가 三四大 禰王 五年(一三七九 A·D)임을 알 수 있는데 이 浮屠도 같은 시기의 건조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神勒寺의 普濟尊者石鐘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浮屠는 신라시대 이래의 典型樣式인 八角圖堂型과는 달리 石鐘型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石鐘型浮屠는 통일신라시대의 太和寺址 十二支像浮屠와 고려초기의 金山寺石鐘이 있으나 八角圖堂型에 비하면 극히 소수였다. 그러나 金山寺石鐘에 비교해보면 기단과 그 주변의 장엄을 비롯하여 탑신부에 이르기까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간략화되고 있다.

둘째, 金山寺石鐘은 앞에 佛塔이 세워져 있어 戒壇과도 같은 것이며 이곳 普濟尊者石鐘은 승려의 浮屠塔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건조의 도부터가 다르다고 하지만 축단과 주변의 장엄은 고사하고 탑신만을 볼

때에 石鐘型에서 퇴화된 鈍重感을 普濟尊者石鐘에서 곧 느낄 수가 있다. 셋째, 앞면과 양측면에 戒壇을 마련하고 있어 先例와는 다른 느낌을 보이고 있다.

(一九) 舍那寺圓證國師石鐘(경기도 楊平郡 玉泉面 龍川里 舍那寺境內 소재, 現全高 一·二二m)

이 石鐘은 현재 山神閣 바로 西南쪽 옆에 건립되어 있는데 자연적으로 長方形 築臺를 구축하고 그 중앙에 안치하였다.

浮屠의 구조는 一枚의 方形地臺石 위에 一枚石으로 造成한 方形臺石이 놓이고 그 위에 一石으로 조각된 石鐘型 탑신을 안치한 一般的인 石鐘型 양식이다. 地臺石은 현재 地下에 묻혀있어 上面도 노출되지 않았으나 試掘로서 上面이나 側面에 아무런 조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臺石에는 측면과 상면에 여러가지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데 측면에는 각면에 眼象과도 같이 三區의 長方形額이 조각되어 마치 兩隅柱와 二柱의 撐柱가 刻出된 것처럼 보이며 上·下端에 甲石形의 굽이 둘러진 것으로 보인다. 上面은 네귀통이마다 雲紋과 圓座形 花瓣을 조각하였는데 山形으로 三圓座를 배치하고 그 양측에도 雲紋을 조각하여서 화사한 모서리를 이루고 있다. 중앙에는 큰직한 圓座形으로 各출한 一段의 圓孤받침이 있어 탑신을 받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圓形받침을 따라 二一瓣의 單葉伏蓮이 둘러졌다.

탑신은 높이가 一·二二m로 平面 圓形의 石鐘型인데 上·下端은 거의 같은 크기이며 中間部가 배불러진 배흘림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탑신의 표면에는 아무런 조각이나 명문은 없다.

相輪部는 별다른 장식없이 탑신 頂上에 寶珠만을 조성하였는데 탑신의 頂上을 약간 평평하게 다듬고 그 위에 圓錐形의 寶珠를 突出시켰다.

現地에 건립되어 있는 塔碑에 의하면 탑비의 건립이 三四大 禰王 一二年(一三八六 A·D)인데 浮屠의 건조연대도 같은 때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 같다.

이상 圓證國師石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이 石鐘型浮屠는 각부 양식과 수법, 그리고 이와 관계된 石碑 등의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圓證國師의舍利를 안치한 浮屠임이 분명하다.

둘째, 臺身을 안치한 臺石에 있어서 측면에 三區의 長方形額을 마련하고 그 上面에 연화문을 장식하고 있는 점은 太古寺圓證國師塔의 기반 부下臺石과 흡사함을 보이고 있어 兩浮屠가 同一人의舍利塔임을 더욱 느끼게 해 준다.

셋째, 石鐘型浮屠로서 단조로운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前期와는 다른 高麗時代의 末期的인 특징을 잘 보이고 있다.

넷째, 이러한 점에서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크게 유행되는 石鐘型浮屠의 祖型의 한 系統을 여기에 들 수도 있겠다.

六 結 語

高麗時代의 石造浮屠를 고찰함에 있어 이상과 같이 初期의 浮屠, 中期浮屠의 特殊形式, 後期の 浮屠, 石鐘型浮屠 등으로 章을 나누어 각기 그 특징을 살펴 보았다.

各章에서 그 시대의 특수한 면을 지적하였으나 여기에 종합적인 고찰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統一新羅時代를 지나 高麗時代에 이르게 되면 新羅末期的인 間略化에서는 타피하여 新興國家의 소산불탑계 규모도 다시 커지고 각부의 조각도 雄健함을 보이며 興法寺眞空大師塔과도 같은 우수작이 건조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石鐘型浮屠에 있어서도 戒壇과도 같이 方壇을 構築하고 주변에 儀物을 배치하여 장엄한 造形을 보이고 있는 金山寺 石鐘도 볼 수 있다.

그런데 高麗時代에서도 초기를 지나 一世紀 이후 고려적인 사회에

이르게 되면 종래의 八角圓堂型이라는 典型的인 양식에서 벗어나 전체의 구성이 平面方形 혹은 부분적으로 塔身만이 球形 등으로 변한 특수한 양식이 나타났으니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을 그 대표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統一新羅時代부터 高麗中葉까지의 변화된 浮屠를 대표작들을 통해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이전까지의 浮屠들은 양식의 변화나 조각의 간략화, 技巧의 弱化 등 다소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고려 후기 사회에 이르러 건조된 浮屠들과 같이 각부 구조의 간략화, 기교의 퇴화 등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었다. 前期와 같이 이 시기에 도 佛敎는 국가적 종교이어서 護國佛敎이므로 高僧大德을 王師, 國師로 숭배하여 그들의 浮屠塔 건립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역시 당시의 국가적 상황과 사회적 불안이 造形物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탓으로 浮屠에 있어서도 크게 衰頹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① 「宋史」卷 487 高麗傳에 「王城有佛事七十區」라 보인다.

② 이 시기의 高麗社會를 일반적으로 高麗後期라 칭하여 前期와 구별하고 있는 바 各概論에서는 정치, 사회적 면 등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나 文化面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文化의 유산이라 하여도 그 시대의 모든 상황을 배경으로 한 소산물이기 때문이다.



〈圖 2〉普賢寺 朗圓大師 悟真塔



〈圖 1〉興法寺 真空大師塔



〈圖 4〉鳳巖寺 靜真大師 圖悟塔



〈圖 3〉大安寺 廣慈大師塔



〈圖 6〉 普願寺 法印國師 寶乘塔



〈圖 5〉 高達寺 元宗大師 慧眞塔



〈圖 8〉 興寧寺 澄曉大師 寶印塔



〈圖 7〉 菩提寺 大鏡大師 玄機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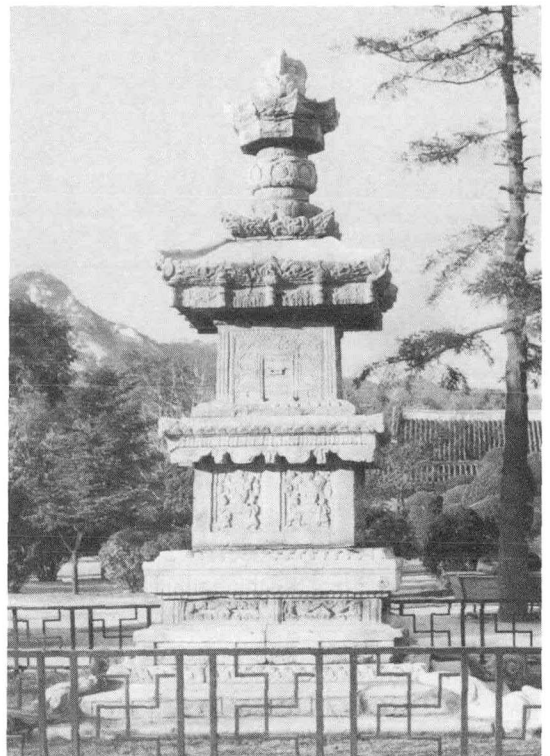
〈圖10〉淨土寺 弘法國師 寶相塔



〈圖9〉居頓寺 圓空國師 勝妙塔



〈圖12〉令傳寺址 普濟尊者 舍利塔(主塔)



〈圖11〉法泉寺 智光國師 玄妙塔



〈圖14〉麟角寺 普覺國師塔



〈圖13〉寶鏡寺 圓眞國師塔



〈圖16〉太古寺 圓證國師塔



〈圖15〉令傳寺址 普濟尊者 舍利塔(東塔)



〈圖19〉 舍那寺 圓證國師 石鐘形浮屠



〈圖17〉 金山寺 石鐘形浮屠



〈圖18〉 神勒寺 普濟尊者 石鐘形浮屠